

칼럼 · Column

# 생활 속의 독서 그리고 도서관



방 선 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단장  
sbang59@korea.kr

‘책 속에 길이 있다.’ 우리는 새로움에 목말라 있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또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책속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는다. 또한 책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면서 정신적 충만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실제로 존경받는 많은 지도자와 예술가, 석학들은 예외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일반 대중이 ‘책’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도서관이 출현한 18세기 이후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와 중세시대에 ‘책’은 권력자의 전유물로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최고의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출현은 ‘책’을 매개로 문명과 문화의 보편적 접근과 발전을 가져 온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문명의 출현은 오늘날 세계의 대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의 양식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인터넷, 휴대용 디지털기기 등은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도 전통적인 개념의 “책”에서 “디지털 매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독서율과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해결책의 하나로 ‘독서’ 가치의 재평가 작업과 함께 세계 각국은 국민독서 진흥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등이 나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 독서율 및 정보리터러시의 향상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학교 등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미국, 1988), ‘북 스타트’(영국, 1992), ‘아침독서 10분’(일본, 1988)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미국의 국립예술지원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조사는 “국민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문화예술 및 자원봉사활동이 높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 ‘책’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1)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제2호, 2009.

우리나라의 국민 독서실태 역시 다른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학생 독서율은 1999년 93.9%, 2004년 89.0%, 2009년 93.7%로 낮아졌다가 근래에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 독서율은 1999년 77.8%, 2004년 76.3%, 2009년 7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학생 독서율이 꾸준히 회복된 것은 창조적 사고와 지식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독서 생활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및 민간 독서단체들이 같이 노력해온 결실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부족과 행사성 치중, 지역·사업간 편중 심화, 직장 및 가정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7월 2일 독서진흥 정책업무가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었다.<sup>2)</sup> 독서진흥 업무가 전국의 17,000여개 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되면 시설과 사업간의 연계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공간·책·직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 도서관, 학교, 독서단체 및 시민단체, 나아가 출판계, 서점 등과도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및 계층에 맞게 자율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현황을 조사·분석, 평가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독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독서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읍·면·동마다 주민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이웃과 함께 잠시 틈을 내어 찾아가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문화 활동이 충분히 닿기 어려운 농산어촌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학교·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문학 강좌 및 시 낭송회 개최 등을 통해 찾아가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날로그 형태의 '책'이 '디지털 콘텐츠'로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책이 전해주는 삶의 철학, 지식과 정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편리하게 '접근 및 활용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 등에 대한 디지털화 및 DB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안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발간된 학술 논문에 대해서는 이용료나 저작권료 부담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개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21세기는 교육·학문·예술·문화와 같은 매력적이고 자발적인 힘이 국가와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 '창의의 시대'이다.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서도 독서와 도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나스닥 주가와 시가 총액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로 유명했던 GM이 나스닥 상장에서 폐지된 상태로 있는 반면, 구글, 애플 등이 최고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과 문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 미래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지식경제, 창의경제를 이끄는 창의와 감수성은 바로 책과 도서관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모든 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면 독서와 도서관이 우리 생활속의 일부로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2) 2010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편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업무가 미디어정책국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됨.